

# 방탄소년단, 아메리칸뮤직어워즈 3관왕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2019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s)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4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씨어터에서 열린 2019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 '페이보릿 듀오 오어 그룹-팝/록' (FAVORITE DUO OR GROUP-POP/ROCK)과 '투어 오브 더 이어' (TOUR OF THE YEAR),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등 3개 부문 수상자로 발표했다.

빌보드 뮤직어워즈(Billboard Music Awards),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이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업적을 이룬 것이며 올해 후보에 오른 3개 부문에서 모두 상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방탄소년단은 시상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보내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듀오 오어 그룹-팝/록' 부문 수상이 1974년 시작된 이래 비영어권 아티스트 몫으로 돌아가기는 처음이다. 미국 주류 팝



시장에서 이미 단단히 자리 잡은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공인된 또 하나의 계기라는 분석이다.

방탄소년단은 아리아나 그란데, 엘튼 존, 핑크, 에드 시런을 제치고 '투어 오브 더 이어' 상도 거머쥐었다.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 영예를 안았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또 다른 미국 3대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 에서도 올해 5월 '톱 듀오/그룹' 과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다만 최근 발표된 제62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는 아쉽게 들지 못했다.

# 미 빌보드, '음반 끼워팔기' 규칙 엄격 적용

미국 빌보드가 최근 논란이 된 '번들' 방식 음반 판매와 관련해 더욱 엄격한 차트 산정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빌보드는 지난 26일 내년 1월 3일부터 머천다이즈(상품) 번들 방식의 음반 판매를 차트에 집계하는 데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번들' 방식 음반 판매는 스타와 관련된 각종 상품에 음반을 끼워 파는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번들에 포함된 앨범이 판매량에 집계되면 번들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웹사이트에서 동시에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앨범과 함께 번들로 묶인 상품은 개별적으로 판매될 경우 번들 그 자체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돼야 한다. 아울러 번들은 제3의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가수의 공식사이트에서 직접 판매돼야 한다.

다만 빌보드는 새 정책이 콘서트 티켓에 포함된 앨범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빌보드는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을 매주 발표하는데 ● 전통적인 앨범 판매량 ●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 등을 적용해 집계한다. 전통적 형태의 음반이 아닌 스트리밍을 통한 음악 소비가 늘어나면서 번들 판매는 음악시장의 새로운 음반 판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상급 팝 가수들도 앨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번들 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런 판매 방식이 차트를 교란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많았다.

빌보드는 "번들 판매가 앨범 구매 그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진짜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팔리는 상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새로운 규정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프랑스 배우 아델 에넬, 10대시절 성추행한 감독 고소



프랑스 배우 아델 에넬(30·사진)이 영화감독 크리스토프 뤼지아(54)가 자신이 10대 초반일 때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추행했다면서 그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에넬은 지난 26일 파리 근교 낭테르의 경찰 성범죄수사부서를 직접 찾아가 뤼지아 감독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에넬은 프랑스의 오스카로 불리는 세자르 영화상의 여우주연상(2015년)과 여우조연상(2014년)을 모두 수상한 배우로, 프랑스의 차세대 연기파 배우로 손꼽히는 재원이다.

에넬은 이달 초 탐사보도매체 미디어파르에 2002년 자신이 13세일 때 뤼지아 감독이 연출한 영화 '악마들' (Les Diables)에 처음 출연한 것을 계기로 뤼지아의 집과 국제영화제 참석 자리 등에서 수년간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초 에넬은 프랑스에서 여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적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입장을 바꿨다.

에넬은 "공인으로서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고발했다."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니 피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끝까지 가보겠다." 고 밝혔다.

뤼지아 감독은 에넬이 언론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직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다가 "애정을 표현한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 줄은 몰랐다."면서 사과한 바 있다.

파리검찰청은 그러나 에넬이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이미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뤼지아를 상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내사를 벌여왔다.

에넬의 미디어파르 인터뷰는 프랑스 영화계에서 '미투' (#metoo) 운동을 다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Candice K. Kim (김경아)**  
**714-373-6883**  
764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1

CA Insurance Agent #: 0B30329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 왕초보 전문 ·

# 가가 찬 영어교육

"참 영어공부 열심히 할 뻔했다"

너무나 미안하게 쉬운 방법 제시  
I Stand Behind my Teachings

-공개 강의내용-

하고 싶은 말이 영어로 나오게 습득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영어를 첫 수업에 한 눈에 들어오게 영어 헛수고 방지법 공개

시험위주와 상업주의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교육은 없었다.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무료교육 실시  
피 같은 돈과 세월을 아끼세요.

루이스 영어 전문 교실

**213.284.4725** 4055 Wilshire Blvd. #301 Los Angeles, CA 90010  
**714.797.4028** 15435 S. Western Ave., Gardena, CA 90249  
905 S. Euclid St. #208, Fullerton, CA 92832

